



한인매일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15년동안 '한인매일신문'과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작별의 아쉬움을 전합니다.

독자들과 함께한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많은 아쉬움과 허전함이 교차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손이 떨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의 세월이 어제일 같건만 아직도 마음은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을때 정보에 목말라하는 교민들에게 그저 정보나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의 위상으로 거듭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한 독자들과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오롯한 추억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창고 한 칸에 쌓여있는 지난날들의 신문이 세월의 영겁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술한 사건과 사고, 때로는 좋은일로 웃기도 했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

는 사고로 모두가 함께 슬퍼하며 울기도 했던 시간들이 모두 한인매일의 한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면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소회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좀 더 좋은신문, 좀 더 알찬정보가 실린 신문의 꿈을 비록 우리가 못다 이루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 줄 것이라 믿으며 독자 여러분들께 작별인사를 고하는 바입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시든 모든 일들이 소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펜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건승하십시오.

2016년12월29일
한인매일 신문사 임, 직원 일동

4.(허위 영사 탄원서) - 4인의 추가 서명 직전 이들이 업주 이만호에게 받아야 할 밀린 급여 혹은 채권이 있음을 토로하며 서명을 끝까지 고민하며 갈등함.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서명을 자발적으로 선택함 (당시 통역 최 모씨의 증언).

(실제 상황)

4인의 여성들이 서명을 끝까지 고민하며 갈등한 이유는 바로 재 진술이 이루어 진다는 영사의 설득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여성이 대표로 경찰 영사 이임걸에게 동 제안이 허위가 아님을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영사는"영사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에 믿어도 된다." (엘코레아노 2월 14일),"영사 앞에서 이야기 했으니 해 주겠죠." (엘코레아노 10월 24일) 라며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경찰 영사 이임걸이 서명을 설득한 상황을 엘코레아노도 명확히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서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자의가 아니며 전적으로 멕시코 검찰에 기만 당한 경찰 영사 이임걸의 설득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동 영사 탄원서 4번 두번째 사항 "실제 상황" 설명에서 해당 증거와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욱 경찰 영사 이임걸이 진술서의 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자국 여성들의 서명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도 그의 업무 전문성 부재였음을 밝혀

낸 바 있습니다. 경찰 영사의 지인 최진열은 피해자 측에서 착수금 10만 페소를 수령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경찰 영사 이임걸과 함께 금전 편취의 형사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례의 증언을 탄원에 올리는 것을 보면 동 영사 탄원서가 기만과 허위에 근거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만 페소가 멕시코 검찰에 전달되지 않은 정황적 증거는 바로 전 항에

서 논리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은 착수금 명목으로 편취한 동 10만 페소를 즉시 반환하고 동포의 절망적 상황을 악용한 범죄 혐의를 이제라도 벗기 바랍니다. <2,3면에 계속>

[한인매일 연속 보도] 탄원서-2

제목 : 이임걸 경찰 영사 측근의 악의적 탄원서 고발
수신 : 대한민국 이철성 경찰청장님 및 황찬현 감사원장님
관련내용 : 멕시코 교민 운영 W주점 사건

한인매일 신문사 공지문 - 한인매일 신문이 2016년12월29일까지 발행합니다.

2016년 병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 해 더욱 어려워지는 멕시코 시장경기에 많은 한인교포들이 몸을 움추리는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처음 멕시코에 사시는 한인분들께 좋은 정보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인매일 신문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한인매일신문을 사랑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더 이상 교민일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한인매일 신문은 한인신문사에 편입되어 주간지로 새롭게 교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한인매일 신문사는 2016년12월29일자 마지막 일간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인매일 신문사를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광고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일간지는 발행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주간 한인매일'로 발행되는 주간지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5년 동안 독자분들과 함께한 시간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인매일 신문사 발행인 이만복 배상